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500ml 리뉴얼

현대약품은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500ml 제품을 새로운 패키지와 함께 리뉴얼 출시했다. 1.2리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내용량 제품이다. 미에로화이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빗살무늬와 사선형 어깨를 500ml 패키지에도 적용해 기존 100ml, 350ml, 1.2리터 제품과 함께 패밀리룩을 완성했다. 개선된 레시피와 무균충진 아선펙 제조기법으로 풍부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문재인 대통령, 6대 기업 총수와 오찬 간담회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개 창출 약속”

삼성·현대차·SK·LG·포스코·KT
교육훈련부터 창업까지 지원키로
문 대통령 “기업의 훌륭한 결단 감사”
정부, IT·중견기업 등 참여 기업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6대 기업 총수들이 27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원호 KT 대표(왼쪽부터). 뉴시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향후 3년 동안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원호 KT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6개 기업 참여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다. 9월 KT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KT 1만 2000명, 삼성 3만 명, LG 3만 9000명, SK 2만 7000명, 포스코 2만 5000명, 현대차 4만 6000명으로 3년 간 총 17만 9000개 규모다.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 거듭하며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인재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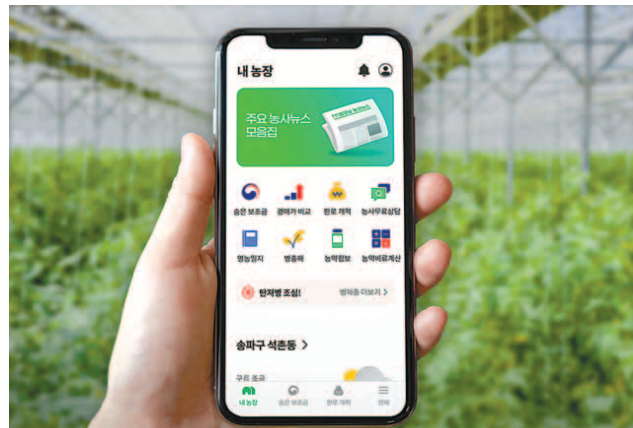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2022년부터 본격화한다. 가장 앞서 협약을 맺은 KT는 이미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13일부터 인공지능(AI) 교육훈련 프로그램 ‘에이블스쿨(AIVLESCUL)’을 시작했다. 삼성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을 내

달 시작한다. LG는 내년 1월 신규 채용 프로그램을 조기 진행해 26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SK도 내년 관계사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전동화 및 자율주행차 등 핵심 기술 교육 프로그램(H모빌리티클래스)의 상반기 기본과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 등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6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8월 가석방 출소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공식 만남을 가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스퀘어가 35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최대 농업 혁신기업 그린랩스의 ‘팜모닝’ 앱. SK스퀘어는 그린랩스와 11번가 신선마켓 등 다양한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

SK스퀘어, 농업의 디지털화 선도 애그테크 ‘그린랩스’에 350억 투자

작물재배 컨설팅 등 운영…신선마켓 협업 기대

SK스퀘어가 투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이어 애그테크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SK스퀘어는 농업 혁신기업 그린랩스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그린랩스는 디지털 농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최대 애그테크(농업+기술) 기업이다. 원스톱 서비스 ‘팜모닝’ 앱을 기반으로 농장업, 작물재배 컨설팅, 신선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이 창업 희망 시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작물재배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 기존 유통 구조보다 더 많은 마진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린랩스의 올해와 다음해 예상 매출은 각각 1060억 원과 4850억 원으로, 매년 4~5배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팜모닝 앱 가입자는 2020년 1만 명, 2021년 45만 명, 2022년 100만 명(예상)이다. 올해 이미 국내 농가의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했다.

SK스퀘어는 그린랩스와 SK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11번가 신선마켓과의 협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가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 ‘팜모닝 카본’을 운영 중인 그린랩스와 넷제로(탄소중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SK가 손잡고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ESG 협력도가 가능한 구조다.

류병훈 SK스퀘어 MD는 “농업의 디지털화로 사회에 기여하고 재무적 성과도 얻을 수 있는 혁신 투자다”며 “유망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스퀘어의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식 출범한 SK스퀘어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달 말에는 첫 투자처로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꼽히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투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고, 카카오페이 법원의 자회사로 3D 디지털촬영 제작 기술을 보유한 온마인드 지분도 인수했다. 김명근 기자

상명대 2022 정시모집…정원 40% 1103명 뽑는다

전년도 정시 모집보다 152명 늘어
2022년 1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상명대(총장 홍성태)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2746명) 중 40.2%에 해당하는 1103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정시 모집정원보다 152명이 늘었다.

정시모집 원서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 또는 유웨이 어플라이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며, 지원서류는 1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므로 접수 시 입학홈페이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명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미래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 융합교육으로 진행되는 상명대 강의.

사진제공 | 상명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대학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융합으로 특성화된 대학’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전 교육 단위가 융복합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와 교육시스템, 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타 대학보다 먼저 창의 융합 교육을 도

입해 운영함으로써 ‘교육’ 자체를 특성화해 학생들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로 성장시켰겠다는 계획이다.

학문의 경계와 틀을 깬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명대만의 고유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계적, 주기적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본 소양 교육과 융복합교육,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까지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다.

상명대의 고유 교육시스템인 SM-CDR(Career Development Roadmap)은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위한 다양한 직업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전공과목, 관련 교양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로드맵화했다. 학생들이 자신이 설정한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전공을 이수하면서 경력개발이 가능하게 한 우수한 교육제도의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2019년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상명대는 ‘AI 특성화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타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SW) 및 AI(인공지능) 역량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게임애니메이션 및 콘텐츠, 금융 데이터, 로봇 분야에 SW와 AI를 융합하고 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캠퍼스 입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고든 램지 버거’ 아시아 최초 서울 잠실 상륙

전세계 4호 매장…내년 1월 정식 오픈
프리오픈, 30분만에 전 타임 예약 마감



고든 램지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의 버거 레스토랑인 ‘고든 램지 버거’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매장을 오픈한다.

고든 램지 버거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330㎡ 규모로 선보이며 30일 프리오픈을 거쳐 내년 1월 7일 그랜드 오픈한다. 프리 오픈 기간에는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20일

시작된 사전 예약은 오픈 30분도 안 돼 2000명이 몰리며 전 타임 예약이 마감됐다.

고든 램지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별점 가이드북인 미쉐린 스타를 16개나 획득한 영국 출신 요리사로, 2012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고든 램지 버거를 론칭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에 1, 2, 3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잠실점은 아시아 최초 매장이자 전 세계 4호 매장이다.

대표 메뉴는 고든 램지가 출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헬스키친’의 이름을 딴 ‘헬스키친 버거’다. 로스티드 할라피노, 토마



‘고든 램지 버거’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매장 조감도.

토, 아보카도 등이 들어가 있다. 리얼 트러플을 사용한 ‘트러플 파마산 프라이즈’, 고구마의 단맛이 느껴지는 ‘스위트 포테이토 프라이즈’ 등은 인기 사이드 메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이재현 CJ회장 장남 이선호 임원 승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사진) CJ제일제당 부장이 신임 임원(경영리더)으로 승진했다.

1990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 부장은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됐다. 1월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을 맡아 9월 비비고와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 간 글로벌 마케팅 계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CJ는 2022년 인사부터 임원 직급이 사장 이하 상무대 우까지 모두 ‘경영리더’ 단일 직급으로 통합된 가운데, 신임 경영리더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명이 이름을 올렸다. 30대 임원 4명을 비롯해 1980년 이후 출생자 8명(15%)이 포함됐으며 평균 연령은 45.6세로 전년(45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회사 측은 “올해 신임 임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중기비전 실행과 그룹 차원의 공격적 인재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신사업 분야에서 젊은 인재 발탁을 늘려 그룹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도록 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